

광주·전남 국회의원 줄줄이 선거법 위반 ‘불명예’

김문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게시 정준호, 자녀 채용 대가 금품수수 안도걸, ‘전화 홍보방’ 불법 운영 박균택, 선거비 제한액 초과 지출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 만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자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부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된 의원도 있어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4건(95명)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5건(40명)은 종결 처리했다. 전남경찰은 총선과 관련해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을 다뤘으며 이 가운데 31건(4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일부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은 최근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도 선거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광주는 3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정준호(북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소셜미디어관리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운영비가 부족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실상 계좌로 돈을 빌렸다가 갚았고 자녀 채용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도걸(동남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 사촌 동생인 A씨는 총선을 앞두고 안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화순군에 사무실을 차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광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 대비 2880만원을 초과해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따른 책임과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자가 있다면 앞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로 인해 진행하게 되는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2년 뒤 있을 지방선거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서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공공장소에서 대형견 입마개를

어 어린이 등에게 개물림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 하기에 앞서 대중이 많은 장소 등에서는 입마개는 필수이다.

폭염과 열대야로 도심 공원과 학교 등에서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운동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인 가운데 최근 한 시민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

김양배 기자

나주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당해 숨져

입원 70대 가해자 폭행치사 입건

나주의 요양병원에서 80대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주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5시5분께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환자 A(86)씨를 주먹으로 가격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B(76)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광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해당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으로 B씨의 사망 원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전남도, 노인돌봄 종사자에 폭염 특별수당 지급

1인당 10만원·매일 안전확인 노고

전남도가 고령자의 안전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돌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26일 전남도는 최근 실시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간담회에서 폭염·한파 기간 업무량 급증에 따른 초과수당 및 교통비 부족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특별수당을 적극 건의한 결과, 노인돌

봄 종사자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정부가 70%, 지자체가 30% 예산을 부담하며 올겨울 한파 때도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가사 지원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건강 악화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고독사 발견 등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는 종사자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심리치료비와 심리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노인돌봄 종사자와의 소통을 늘려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정부에 노인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 건의해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